

전북스포츠클럽, 급여삭감·단축근무

코로나19 장기화 탓 체육인 생계 위협 현실화...다음달엔 무급휴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육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전북스포츠클럽은 이달 직원(행정직원·지도자 등) 급여를 50% 삭감하고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에는 불가피하게 무급휴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스포츠클럽의 경우 헬스와 스쿼시, 배드민턴, 수영, 아이스하키, 요가 등 총 6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체육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

가온 것이다. 비단 전북스포츠클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스포츠클럽에서도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연차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전북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이 중단되면서 문제

가 심각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한 체육회에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지역 기반 클럽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98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제했다.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2008년부터 13년간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선정됐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전라북도가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성, 창조성, 인성이 함양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취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해 2010년 행정안전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단장 이영은 교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 취업률이 92.3%에 이르렀고, 24개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단 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았으며, 식품산업 전반의 실무능력 및 인성을 갖춘 수 있도록 교내 식품영양학과와 식품생명공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3개 학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식품품질안전 및 생산관리·식품연구개발 및 집단급식 등 다양한 식품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식품 산업체 CEO 취업 특강 및 산업체 전문가 세미나, 장·단기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1:1 맞춤형 진로 설계를 통해 기업 직무 정보를 탐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HACCP 팀장 기본 과정, 위생사 특강, 영양사 특강, 아동요리지도사, 국제 아토피상담사 등 각종 단기 교육 및 취업캠프를 비롯해 취업률 향상을 위한 동행면접 등 실무능력과 취업마인드를 함양시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비전대, 외국인 유학생 특별관리 해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비전대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입학한 미얀마 유학생(발병국가가 베트남 경우 입국) 30명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내 기숙사 특별격리시설에서 2주간 철저히 관리했으며, 현재 유학생 전원은 특별한 증상없이 건강하게 퇴소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기숙사 방역을 마친 전주비전대는 유학생들에게 하루 3차례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1일 3회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학생들의 자가격리진단 결과를 교내 인터넷으로 업로드해 감염예방 및 불만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유학생을 담당하는 국제교류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격리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유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락 국제교류팀장은 유학생들이

2주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편지를 본국의 부모님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홍순직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격리생활에 불편을 감수하고 대학 측에 최대한 협조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것이라며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 건강히 잘 지내는 모습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를 마친 전주비전대는 유학생들에게 하루 3차례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1일 3회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학생들의 자가격리진단 결과를 교내 인터넷으로 업로드해 감염예방 및 불만을 최소화했다. 이에 김나립 학사지원처장은 "우리 대학은 e-클래스와 온라인 수업을 연동해 원격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1일 전주대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관과 옥창민, 박은지, 이향연 학예연구사는 대학발전을 위해 2,1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학 발전위해 2,100만원 기탁

전주대 박물관 직원 한마음 전주대학교 박물관 교직원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한 데 모았다. 11일 전주대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관과 옥창민, 박은지, 이향연 학예연구사는 대학발전을 위해 2,100만원을 기탁했다. 전주대 박물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 위탁 교육, 전시, 문

화재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받은 연구수당을 학교와 박물관 발전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지역 학생 대상 역사 교육, 전시 활동, 유해발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교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고 더욱 학교를 사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박물관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에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 헌신하고 기여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위해 기부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 직원들은 2013년부터 학교와 박물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총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제5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30명 위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층 회의실에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모집한 위원 18명, 교육감추천 위원 6명, 임기 연장 한 위원 6명이며, 앞으로 전북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예산소위원회, 분과별 회의, 공모사업 추진사항 ▲도교육청 홈페이지 주민참여방 운영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다시 문 여는 도내 학원들 전북교육청, 방역물품 지원

총 5,270곳·손소독제·알콜스프레이소독제·항균비누 3종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학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에 들어갔던 학원들이 속속 개원하면서 안전한 학원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안전과 학원들의 방역물품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원 4,094곳, 교습소 1,176곳 등 총 5,270곳이다. 지원물품은 손소독제·알콜스프레이소독제·항균비누 등 3종으로 총 1억 8400여만원 상당이다. 방역물품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구입·배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휴원 권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준 학원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꼼꼼한 방역활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학원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